

이음, 제주

기록을 통해 삶을 잇다

TRACK.17



Special Theme

제각각, 아름다운 일상의 기록들

CONTENTS

02	제각각, 아름다운 일상의 기록들
04	PLACE 원도심 산책
10	PEOPLE 구석 구석 카메라를 청소합니다 구석카메라
12	제주의 미소를 흑백사진에 담다 선우스타일
14	오직 하나뿐인 카메라 그리고 사진 섬돌레기 껌짜카메라
16	FOCUS 제주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현장을 카메라에 기록하다 강만보 사진작가
20	ZOOM IN 당신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필름카메라 동아리 '소소'
22	소소한 행복이 담긴 사진
24	OPINION 내 문학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김수열 시인
26	ARCHIVE 사진이 붙잡은 삶의 순간들 2019년 제주시 원도심 근·현대 사진수집 아카이빙 사업
30	REPORTAGE 내가 사는 대정, 내가 살아갈 대정 찾아가는 대정을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34	INSIDE 도시를 살리는 대학
36	LIBRARY 도시재생 용어사전
39	NEWS

발행일 2020년 4월 20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1) 발행·편집인 부성현
기획·편집·디자인·제작 주드(010-2574-9679) 인쇄 태웅씨엔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페이지 www.jejuregen.org <이음, 제주>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의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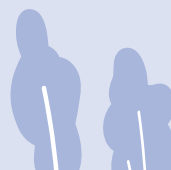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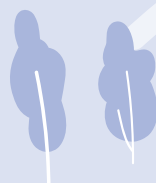
제각각, 아름다운 일상의 기록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기억한다. 누군가는 일기장에 꼭꼭 눌러 적은 글씨로 하루 일을 기록하고 누군가는 사진을 통해 기록한다. 어떤 방식으로 남겨졌든, 모든 기록은 소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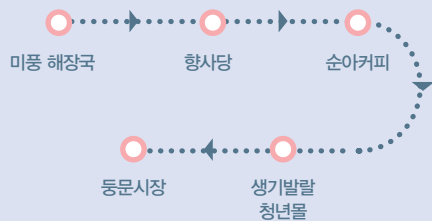
도시재생에도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삶의 흔적과 이야기들이 새로운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음제주> 17호(20년 봄호)에서는 사진을 통해 일상의 기록을 각자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필름카메라 하나로 제주의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을 기록하는 필름카메라 동아리 '소소'의 사진 이야기부터 사라져가는 제주의 민속과 고단한 해녀의 삶을 기록하는 강만보 작가,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흑백사진에 담는 김선우 대표까지 사진이란 도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들의 기록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일상이기 때문은 아닐까.

”



반나절 산책 코스



하루 산책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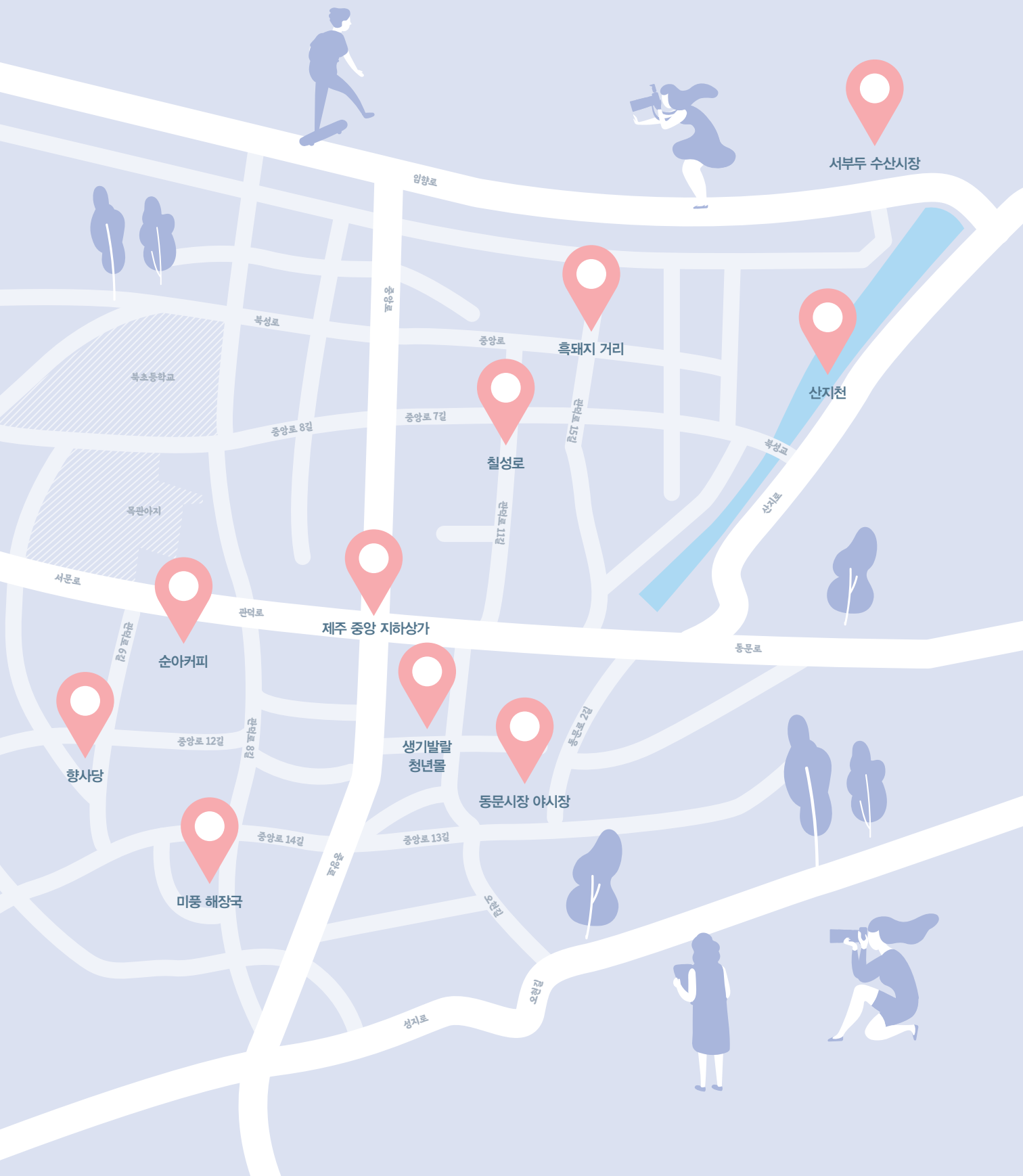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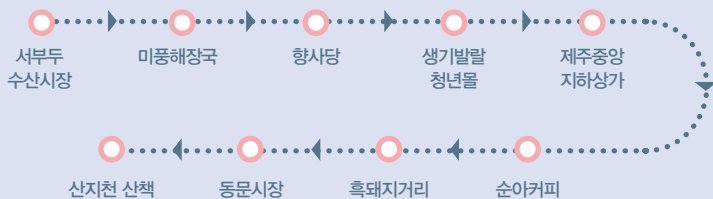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꾸다

서부두수산시장 이른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 찬 제주항. 밤샘 조업을 마친 배가 하나 둘 서부두에 정박한다. 제주항에 배가 들오면 바로 잡은 고기를 사서 좌판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반짝시장'이 열린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반짝 열려 반짝시장이다. 제주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을 찾아 분주한 사람들로 제주 서부두는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49

4:00 a.m



7:30 a.m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미풍해장국 다른 지역보다 유독 다양한 해장국이 많은 제주도. 그중 미풍해장국은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이다.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골목에 위치한 미풍해장국은 오로지 해장국 하나로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른 아침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은 허기진 배는 물론 소소한 행복까지 채워준다. 한결같은 맛과 더불어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 온 미풍해장국이 우리 곁에 오랫동안 함께 하길 바란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3
 운영시간 5:00~15:00 ☎ 전화번호 064-758-7522

뚜벅뚜벅 걸으며 원도심을 산책하다 보면 따뜻한 추억과 고요한 휴식을 만날 수 있다.
길 위에 숨겨진 원도심의 이야기를 카메라 속에 담았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아지자기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원도심의 매력을 만나보자.

원도심 산책



11:00 a.m

일상에 침표

향사당 제주 원도심 곳곳에는 숨겨진 다양한 문화유적이 많다. 그중 향사당은 제주도민들도 잘 모르는 역사유적이다. 삼도2동 안에 위치한 향사당은 조선시대 정자로 고을의 어른들이 봄, 가을 2번의 모임을 갖고 활쏘기와 잔치를 베풀며 당면과제나 민심의 동향에 대해 논하던 곳이다.

향사당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여유롭게 다가온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곳에서 제주의 따스한 햇볕과 바람에 기대어보자.

주 소 제주시삼도2동 970-2

제주 청년들의 집합소

생기발랄청년들 제주 청년몰은 2019년 12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중 2층은 청년상인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먹거리 코너로 대만식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지조스바오, 프로 혼밥러를 위한 착한 혼밥, 퓨전 떡을 판매하는 온정떡방 등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오늘 점심은 색다른 제주의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생기발랄 청년몰을 방문해보자. 배부르게 점심을 먹은 후 1층 소품샵에 둘러 아가자기한 제주 기념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단 사실.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1길1



12:00 p.m





14:00 p.m



제주 쇼핑의 1번지

제주중앙지하상가 제주중앙지하상가는 1980년 후반 제주도의 유일한 지하상가로 개장한 후 도민들의 쇼핑은 물론 만남의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곳 지하상가는 의류뿐만 아니라 화장품, 신발, 가방, 액세서리, 식당까지 30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또한, 제주전통재래시장인 동문시장과 칠성로, 서문로, 탑동, 관덕정 등을 잇는 지하 아케이드 역할도 하고 있다. 제주중앙지하상가는 제주 쇼핑의 1번지로 지난 30여 년 동안 도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60

16:30 p.m



원도심 시간 여행

순아커피 관덕정 맞은편에 자리 잡은 순아커피는 100여 년의 시간을 품고 있다. 이곳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목조주택으로 지금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는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 좁은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다다미방을 만날 수 있는데 10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을 경험할 수 있다. 늦은 오후 2층 창가에 가만히 앉아 커피를 마시다 보면 나무 창으로 살포시 햇살이 들어온다.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가 아닐까.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32-1
 ☎ 운영시간 월~토 11:00~19:00
 일 13:00~19:00 수요일 휴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제주 흑돼지거리 흑돼지는 옛날부터 제주사람들이 잔치에서 먹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 귀한 만큼 맛도 일품이다.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풍미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제주 흑돼지를 빼놓지 않고 찾는다. 가족, 친구, 회사 동료와 오늘 저녁 흑돼지를 먹을 계획이라면 제주 흑돼지거리를 방문해보자. 제주 흑돼지 맛집은 이곳에 모두 모여있으니 흑돼지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만족할 것이다.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동1동 1432-1



18:00 p.m



제주의 모든 걸 팝니다

동문시장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동문시장은 제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갖 생선, 야채, 과일, 식료품은 물론 의류, 신발, 농기구까지 없는 것 없이 다 갖추고 있다. 시장 곳곳을 누비다 보면 눈과 입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동문시장에는 시장구경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제주의 다양한 맛을 발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동문시장으로 가자.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434



20:00 p.m



도심 속을 거닐다

산지촌 산지촌은 동문시장 입구 맞은편에 흐르는 하천으로, 하천을 따라 산책할 수 있다. 동문시장부터 제주항까지 산지촌을 따라 걷다 보면 제주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낮에는 도심 속 옛길을 걸어보는 경험을 했다면 저녁에는 은은한 달빛과 함께 산지촌 주변을 수놓은 다양한 조명이 어우러져 낮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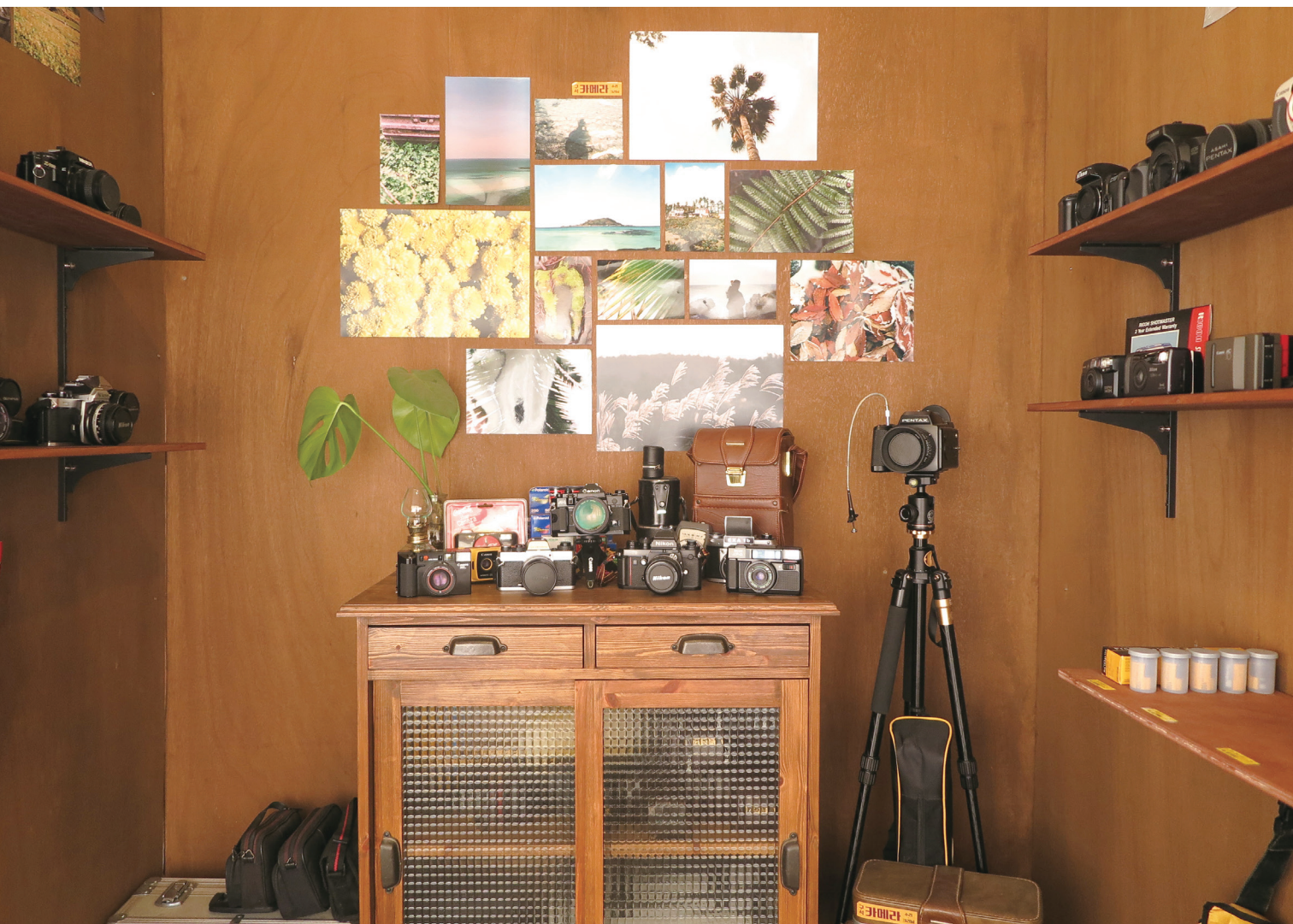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동

21:00 p.m

구석 구석 카메라를 청소합니다

구석카메라

필름카메라의 매력은 특유의 감성과
빛 바랜 색뿐만 아니라 주변을 더
천천히 보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찍어 확인할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대단히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묘한 설렘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제주 원도심 한쪽
구석에 필름 카메라의 생명을 다시
불어 넣어 주는 곳이 있다. 바로
구석카메라다. 구석카메라의 류정철
대표와 나눈 일상과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처음에는 미래책방 한쪽에서 운영을 하다 현재는 바로 옆으로 이사를 했다. 매장을 이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약이 만료되던 시점에 운이 좋게 바로 옆에 공간이 생겨서 이사를 이사를 했어요. 이 공간은 저를 포함해 3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정보도 공유하고 도와가며 지내고 있어요.

필름카메라 수리, 클리닝 서비스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 저는 요리하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계속 일만 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어요.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 제주도를 도피처 삼아 내려왔죠. 제주도에 내려와서 '비스트로 더반'에서 일을 했는데 힐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내려놓고 쉬기로 했죠. 쉬면서 뭐하지 생각하다 어릴 때부터 취미였던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주에는 카메라가 고장 나면 수리할 곳이 없더라고요. 없으면 내가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구석카메라를 시작했어요.

그럼 사진은 어디서 배웠나요?

대학시절 푸드스타일링 수업을 들으면서 부전 공으로 사진을 배웠어요.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때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었죠. 홍대에서 잠깐이지만 스트리트 포토 그래퍼로도 활동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고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나요?

주로 20~30대 분들이 많아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일부러 오시는 관광객도 있고 진짜 카메라가 고장 나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있어요. 처음에는 관광객이 많았는데, 지금은 도민 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나요?

니콘 FM2기종을 수리하러 온 남자 고객이 있었는데 카메라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적적해하시는데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수리를 하러 온 친구였어요. 아버지 카메라를 고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은근 감동을 받았어요.

제주, 그것도 원도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의 장단점이 있다면?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인 것 같아요. 공항이랑 가까워 관광객의 경우 올 때 갈 때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저희도 생활하기 편하고요. 마트도 가깝고 교통도 편하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차 없으면 이동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단점은 유동인구가 적고 신제주에 비해 생활하는 연령층이 높아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필름카메라의 매력과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원도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래된 집들, 골목, 돌담 모두가 예쁜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인 레트로 감성의 동네인 것 같아요. 이곳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촌구석이 뭐가 예쁘냐고 하시지만요(웃음).

제주도 혹은 원도심에서 추천하고 싶은 포토스팟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좋은 사진이 많이 나왔던 곳은 신비한 느낌의 시려니 숲길이에요. 원도심에서는 시라봉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요.

아날로그적인 사진을 더 많이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원도심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젊은 감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방문하는 20~30대 소비자층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 주 소 제주시 관덕로 4길 1-2
☎ 전화번호 010-3882-0600
🕒 운영시간 12:00~19:00 (수.목 휴무)
📱 인스타그램 @camera_gusuk

제주의 미소를 흑백사진에 담다

선우스타일

동문시장 2층에 위치한
선우스타일은 흑백사진을 찍는
사진관이다. 활기 넘치는 시장
사람들의 표정과 선우스타일의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 같이
정겹고 행복해 보인다. 20년간 일을
하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김선우 대표. 제주가
가져다준 행복한 일상을 만나보자.



동문시장에서 흑백사진관을 운영하게 된 배
경이 궁금해요.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치료 차원으로 제
주에 내려왔어요. 1년만 살다 다시 돌아갈 계
획이었는데 제주가 너무 좋았어요. 건강을 다
시 되찾은 후 제주에서 사진관을 하기 위해
장소를 알아봤는데, 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월정리를 고집했고 아내는 동문시장이 좋다
고 했어요. 아내 말을 듣기로 하고 동문시장에
사진관을 열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내 말을 듣
기 잘한 것 같아요. 흑백사진과 시장이 주는
감성이 비슷하잖아요. 항상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웃음).



제주의 다른 사진관과 차별화된 선우만의 스
타일이 있나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해요. 연출된 모습이 아닌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
습을 담고 싶거든요. 어린 자녀를 찍으러 오신
아버님이 있었는데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 노력
하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나를 웃게 해 준 아빠가 생각날 수
있잖아요. 사진과 함께 추억도 함께 기억되면 좋
겠어요. 그래서 사진에 웃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
양한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고객층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도민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우정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 가족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 만삭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 모녀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 노부부 등 연령층도 다양해요.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나요?

처음 사진을 찍은 고객이 노부부였는데, 정형화된 사진이 아닌 박장대소하는 사진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너무 맘에 드는 사진이었는데 같은 사진을 선택하셔서 놀라우면서 너무 좋았던 고객이었어요. 그리고 모녀끼리 사진을 찍으러 와서 우시는 분들도 기억에 남아요.

사진 1장 가격이 매우 저렴한데, 가격을 5,000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누구나 부담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사진관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에 물건 사러 왔다가 한 장 찍을 수도 있고 실내화 신고 와서 찍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정했어요. 고객들이 사진을 받고 다들 너무 좋아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초반에는 스냅사진도 촬영을 했는데, 스냅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가격은 맞아요. 스냅 2

시간 촬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좋을 수 있지만 제 마음속 만족도가 흑백사진이 훨씬 커서 지금은 흑백사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제주, 그것도 동문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의 장단점은?

동문시장은 관광객, 도민 분들 모두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반면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청년몰은 상대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청년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쉬워요.

흑백사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흑백사진은 단순해요. 그래서 표정에 더 집중하게 되죠. 컬러 사진이었다면 느낄 수 없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진관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잘 차려 입고 찍어야 되는 사진관보다 지나가다 사진 한 장 찍고 갈 수 있는 친구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진 찍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10년, 20년이 지나 훗날에 나비넥타이를 맨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찍어 주는 동네 사진관으로 남고 싶어요.

주 소 제주도 제주시 동문로16 (여)동문시장
2층 흑백사진관 선우스타일
전화번호 010-8913-8733
www.sunwoost.com
사 이 트 (예약제로 운영)

오직 하나뿐인 카메라 그리고 사진

섬돌레기 꺾짜카메라



이게 카메라라고? 제주도 원도심에 위치한 섬돌레기 안에는 시골 할머니 방에서 본 것 같은 물건들로 만들어진 카메라가 있다. 바로 꺾짜 카메라다. 손 때 묻은 흔적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꺾짜카메라를 통해 사람들과 호흡하고 있는 김린성 작가를 만났다.



궤짝카메라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기존 카메라로는 원하는 작업을 하기 힘들었는데 우연히 '거리의 사진가'란 사이트를 보고 카메라를 직접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어요. 초창기 모델은 카메라 형태는 좋는데 사진의 퀄리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치기를 반복하면서 지금의 카메라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이름처럼 진짜 꺾꽂이로 카메라 외관을 만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꺾꽂이 카메라에 사용된 꺾꽂이는 할머니들이 쓰던 꺾꽂이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어요. 할머니들이 쓰던 경험치를 얻어 와서 붙이고 새로 칠을 했죠. 당시 제주도 풍경과 할머니들을 주로 찍었는데 친분이 있는 할머니 집에서 친구처럼 지내며 작업을 했었죠. 삶이 똑똑 묻어 있는 할머니의 꺾꽂이를 열면 그 안에 할머니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가 꺾꽂이잖아요.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묻어 나오는 꺾꽂이.

궤짝카메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사진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나요?

귀작카메라로 찍으면 일반 사진에 비해 명도대비가 강해요. 그래서 사진이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제 작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요. 일반인 중에서도 아날로그적인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고객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작년 신진의 목장에서 한 달 정도 작업을 진행했어요. 실내 촬영은 촬영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노출, ISO 등 촬영 모드 역시 일정해 퀄리티가 보장되지만 야외 촬영은 변수가 많아서 사진 퀄리티를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당시 올레길에 작업을 했는데 일부러 찾아 오셨던 분들, 여행 왔다 작업하는 걸 보고 사진을 찍고

숨어 했던 분들이 있었죠. 꺾꽂이메라로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부족한 상황이여서 좌충우돌하면서 찍었죠. 다행히 결과물이 잘 나와 모두 만족해하셔서 기억에 남아요.

원도심에 섬돌레기를 오픈한 이유가 있나요?

원도심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 있으면 재미있
잖아요(웃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좋으니깐요. 사실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80~90년대 건물에서 사진관을 하고 싶어요. 그 공간에 '카메라방'을 만들어서 직접 만든 껌짜카메라들로 채우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장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로 전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 소 제주시 관덕로8길 35
인스타그램 @seom dolregi





옛 제주 시내 전경. 제주시 원도심 근·현대 사집수집 아카이빙 사업에 선정된 작품

제주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현장을 카메라에 기록하다

강만보 사진작가

사진은 중요한 기록매체 중 하나다. 또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현실을 떠나서 사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 현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사관이 문서로 역사를 기록한다면 사진가는 사진을 통해 역사를 담고 기록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허물어지고 사라진 옛 건물, 흑백사진 속 어린 시절 모습, 정겨웠던 시골 장터 모습 등 더 이상 볼 수 없는 우리의 역사가 사진 속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은 '발견의 예술'이라고도 한다. 작가는 사진을 통해 피사체의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구체적인 대상을 기록하는 사진은 단순히 기록으로 머물지 않고 작가의 시각에서 재해석된다. 그리고 사진 속 시간은 멈춰있지만 사진의 생명은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쉰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의 아름다운 원도심 역사를 기록하고
홍보하기 위해 '제주 원도심 근·현대 사진'을 공모했다.
100여 점이 넘는 작품 중 50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그중 4점의 작품을 촬영한 강만보 작가를 만나 기록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꾸다

제주의 민속풍속사진과 해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0여 년 간 사진에 그들의 삶을 담은 원로예술가가 있다. 바로 강만보 작가다. 칠십이 넘는 나이이지만 그의 열정과 제주에 대한 사랑은 젊은 작가 못지않다. 그는 한라일보 사진부장, 한라일보 오사카 특파원, 제민일보 일본코리아뉴스 취재부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민속사진연구회 등을 창립하여 사라져 가는 제주민속과 생활 사진을 기록하는데 힘써왔다.

그가 사진을 시작한 계기는 어린 시절 누군가 찍어 준 사진 한 장 때문이라고 한다. 사진 한 장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은 것이다. 6살부터 10살까지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당

시 일본어를 할 줄 몰랐다. 일본어를 할 줄 몰라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혼자 바닥에 낙서를 하며 노는 날이 많았다. 그런 그의 모습이 귀엽고 천진난만해 보였는지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 선물해 줬다고 한다. 훗날 고등학교이 된 그는 어머니의 귀퉁이 속에 고이 보관된 어린 시절 사진을 보게 되었고 흑백사진 속 어린 시절이 너무나 그림고 소중했다고 한다.

사진 속 멈춰진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고이 보관된 추억을 다시 꺼내게 할 수는 있다. 그게 바로 사진의 힘이다. 강만보 작가는 사진의 힘에 매료되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라져 가는 제주의 민속과 생활, 해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제주해녀 그리고 출항해녀의 기록

그는 민속사진과 함께 해녀들의 강인한 삶을 앵글에 담고 있다. 2016년 UNESCO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는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물질을 이어오고 있는 그녀들의 공동체적 생활방식과 환경주의적 가치성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해녀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주해녀와 더불어 출항해녀'를 기록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출항해녀들의 역적스러운 삶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지역의 독특한 양식의 해녀문화도 앵글로 기록했다. 그는 전남, 완도를 시작으로 14개 섬을 돌아다니며 해녀들의 얼굴 사진을 찍어 기록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삶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다

사진은 의사전달의 한 수단이라고 그는 말한다. 한 장의 사진은 시간적 흐름을 정지시켜 아름다운 추억을 되돌아보게도 하지만 시대적인 사진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역사적 사실을 일깨워 큰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가 한결같이 제주의 삶을 카메라에 담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사진을 시작하면서 리석 고영일 선생님의 사진 사조인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다. 가장 제주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그는 민속사진에서 그 답을 찾았다. 농촌, 어촌, 시장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빛과 구도 그리고 감정을 일치시켜 예술 사진으로 승화시켰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사진으로 남은 제주의 생활상은 우리들에게 과거 제주 선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남았다.

사진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찍어야 될까? 이 물음에 강만보 작가는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주변 곳곳에 기다리고 있는 인간의 삶을 기록해 둔다면 이 기록들은 먼 훗날 우리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오늘도 제주의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출항해녀 | 1883년 조일통상장장(海通商署)이 체결된 이후 일본 잠수기가 제주 해역에서 조업하며 어장을 파괴하자 1895년부터 제주 해녀들이 부산 기장과 울산 등지로 출항을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산업용, 군수용으로 일본 내에서 해조류의 수요가 급증하자 부산에 있던 객주와 해조 상인, 전주 등 매개인에 의해 출항하는 해녀가 늘어 1915년 2500명 정도였던 출항해녀 수는 1939년 4132명까지 늘었다. 현재는 전국 어촌계에 출항해녀가 77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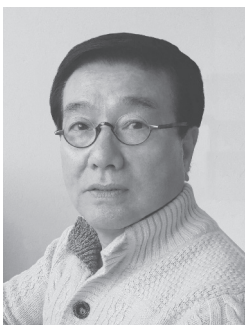
〈뱃물질, 2019년 삼천포 해안에서 촬영〉
남해안 지역 삼천포에 정착해 물질 작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출항해녀들.
바다로 입수하기 전 배 난간에서 촬영.



산지전 앞 수산시장



탐동 초가집
두 작품 모두 제주시 월도심 근·현대 사진 수집 아카이빙 사업에 선정된 작품



강만보 작가

1948년 제주도 제주시 남문로 항골 출생. 1990년대 초까지 '강영보'로 활동하였다. 1987년 한국사진가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본격적인 사진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1989년 창간된 한라일보에 사진기자로 재직하면서 1990년까지 제주의 민속을 사진으로 기록한 〈민속풍물〉을 연재하였고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민속학자 김영돈과 한라일보의 기획 연재물인 〈해녀〉에 사진으로 참여했다. 1990~1994년까지 제주의 석물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제주의 돌문화〉를 한라일보에 연재했다. 1996년 한라일보

사진부장으로 재직 도중 오사카 특파원으로 파견 1998~2000년까지 제민일보 일본 코리안뉴스 취재부장으로 근무하다 제주로 돌아와 만재 카메라를 운영하며 작가 활동을 지속했다. 1991년 첫 개인전 이후 9회의 개인전과 9권의 사진집을 발간하였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대표작으로 〈제주 사람들〉과 〈출항 제주해녀〉 연작이 있으며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해녀박물관, 김만덕 기념관, 오사카 이쿠노(生野)구 '도라이(渡來)' 갤러리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당신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필름카메라 동아리 '소소'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필름카메라 동아리 '소소'.
필름카메라가 마냥 좋아서 사진을 찍는다는 그들의 소소하지만은 않은 사진 이야기들.

제주의 아날로그 감성을 카메라에 담다

2019년 6월 만들어진 '소소'는 스마트와 디지털 사이에 점차 잊혀져가는 아날로그와 클래식한 감성을 되찾고자 만들어진 필름카메라 동아리다.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설레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동아리 사람들. 또한, 편하고 빠른 디지털카메라 보다 느리고 어렵지만 기다림의 미학을 지닌 필름카메라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카메라는 제주의 일상을 담는다. 제주의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을 카메라를 통해 기록하는 것이다. 마치 제주를 여행하듯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여행 같은 일상을, 일상으로부터 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필름카메라와 함께 멀리 혹은 가까이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인다.

친구 같은 '소소'

동아리에 모인 사람들은 명칭인 '소소'처럼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찾고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카메라에 대한 거창한 지식이나 스킬 없이도 필름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환영한다.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형성된 경우가 많아 그냥 좋아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가입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소에 모인 사람들은 취미는 즐기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 취미로서의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사진에 대한 평가나 카메라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보다 사진을 찍었을 때의 감정, 필름카메라를 통해 경험한 아날로그 감성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활동의 전부다. 더불어 서로 인화, 스캔한 사진을 보며 사진을 찍을 때 좋았던 것, 배우게 된 것들을 함께 공유한다. 동아리 활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주의 일상 속 모습과 더불어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집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들의 행보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소소한 행복이 담긴 사진

필름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일상의 기록들.



관덕장

#관덕장 #제주 원도심 사람과 물건을
있다 #중고마켓 #제주플리마켓 #누구나
참여 #안쓰는 물건 팔아보자!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목관아지

#목관아지 #역사 여행 #제주의 역사
#제주의 중심 #제주의 문화유산



베드라디오

#베드라디오 #힙한 호텔 #제주
원도심 게스트하우스 #로컬 소셜라이징
호텔



리듬앤블루스

#리듬앤블루스 #태평양 #목욕탕
개조 카페 #샐라메 #반려견 동반카페
#레트로 감성 #(구)샬다방 #카페투어



장복호

#장복호 #이색맛집 #흥게 조림장 #복이
따르는 배 #안주로드 #분위기 좋은 술집
#흥게 음식



관덕정 분식

#관덕정분식 #원도심 맛집 #카페 같은
분식집 #떡볶이 맛집 #해물맛 #제주
핫플



김영수도서관

#김영수도서관 #책스타그램

#어린이도서관 #목관아가 보이는 책들

#제주북초등학교 #원도심 도시재생

#어린이 독서교육



송키

#카페 송키 #가정집 카페 #빈티지 감성

#송키마켓 #80년대 감성 #제주도카페



제주책방

#제주책방 #고씨주택 #제주사랑방

#독서모임 #도시재생 #오래된 전통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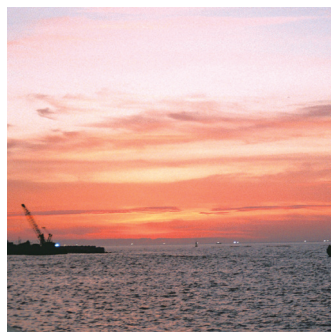
#소통



미래책방

#미래책방 #독립서점 #원도심 작은

책방 #책방투어 #제주책방



탐동

#탐동 #제주 바다 #탐동 풍경 #제주

일상 #제주여행 #제주 일출 명소 #탐동

해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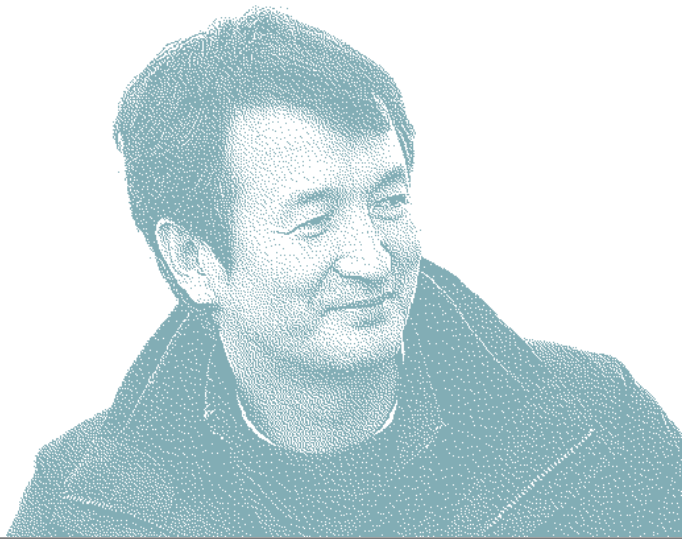


엘리펀트힙

#엘리펀트힙 #탐동맛집 #빈티지

인테리어 #엔틱 #제주도소품샵

#데이트코스



내 문학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글 김수열

문단의 말석에 발을 들인 뒤 문학의 길을 걸어온 지도 어느덧 서른하고 여덟 해가 지나고 있다. 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어린 시절 교박교박 일기를 쓰면서 글 솜씨를 닦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문학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그 인연이야말로 참 질기기도 하다.

돌아보면 전혀 인연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 인연을 찾아 내 아득한 유년으로 길을 나서 본다. 무근성 간장 공장 골목에 살아서 당연히 북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동네 형들이 모두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학교를 입학한다는 건 그저 놀이터가 동네 골목에서 학교 운동장으로 넓혀졌다는 것과 골목을 벗어나지 못하던 친구 관계가 보다 넓어졌다는 것 정도가 차이라면 차이겠다.

그 무렵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따지고 보면 낙서 수준에 불과했지만 어머니가 사다 준 공책 여백에 별의별 낙서 투성이인 것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다. 아무도 몰래 무슨 고상한 글을 적적하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도 유년 시절, 나는 글쓰기보다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했다고 어렵지 않게 단정 지을 수 있

는 근거다.

학교 대표로 불려 가 그림을 그렸던 기억도 새롭다. 선생님 손에 이끌려 남문통 지나 지금 전농로에 위치했던 제주농고로 갔다. 교복을 입은 형과 누나들도 와 있었고 우리 또래의 초등학교 아이들도 운동장 주변을 가득 메웠다. 운동장 가운데에는 큼지막한 소방차가 한 대 서 있고, 정규복을 갖춘 소방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호수를 타고 물이 뿜어져 나와 그것으로 불을 끄는 장면을 시연하는 것이었다. 어마어마한 높이였고 어마어마한 거리였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는 불자동차 사생대회로 이어졌다. 무엇을 그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왕자 크레파스로 그려 열심히 그렸다는 생각은 든다. 도화지 위아래로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를 써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결국 입선을 했고, 나는 그때 그림에 재주가 있다고 선뜻 결론을 내렸다.

그 후에도 종종 대표 선수로 불려 갔던 기억이 있다. 귀순 용사 강연을 들은 다음 늑대를 의인화해서 북한군을 그렸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잊지 말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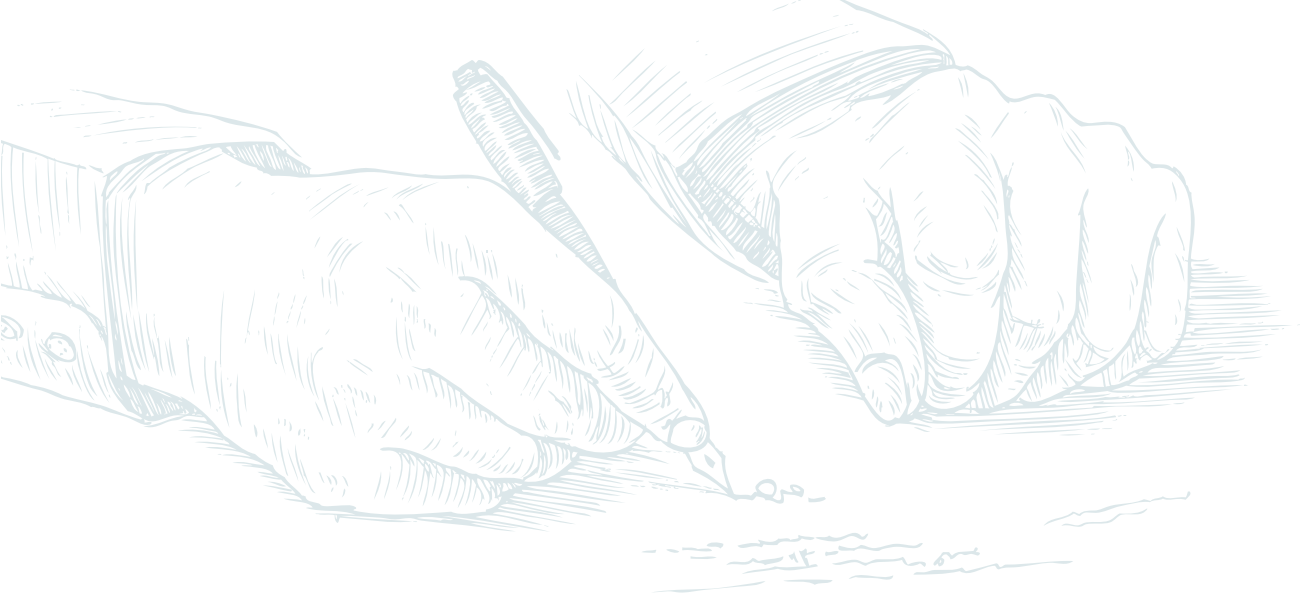
큼지막하게 썼다.

5학년 때였다. 담임선생님은 무슨 대회(그게 한라문화제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를 소개하면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명단을 제출하라 하셨다. 나는 어김없이 '미술부문'에 신청을 했는데 며칠 지나 담임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서 나더러 운문부문으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시'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동시 몇 편 읽은 게 고작인데,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그 무렵 학급 반장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께 뭐라 얘기하기도 난감한 처지였다.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있는 닭장에 모이를 주면서도 툭툭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냐며 물었지만 나는 닭 모이통을 발로 툭툭 찰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대회가 열리는 날, 날씨도 내 기분처럼 폭 가라앉아 있었다. 남문통을 지나 지금은 칼호텔이 들어선 제주여고로 갔다. 정해진 자리에 앉았는데 창가였다. 가방에서 필통과 책받침을 꺼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칠판에 시제를 쓰셨다. 시제가 '창(窓)'이었다.

학생들은 나누어준 종이에 일사불란하게 써



김수열 시인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 활동해 온 ‘제주 토박이 시인’이다.
그가 걸었던 문학의 시작에는 무근성이 있다.
글이 되지 않을 땐 버스를 타고 원도심 무근성을 간다는 김수열 작가.
그의 문학이 시작된 원도심을 함께 거닐어 보자.

내려갔다. 교실 안은 적막했고 오직 책받침에 연필 부딪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러자니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죄 없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창이 조화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창을 통해 바깥을 보고 싶으면 바깥 풍경이 보이고 비스듬히 창을 보면 나를 포함한 교실 안 풍경이 보였다. 어떤 때는 교실 안과 밖의 풍경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했다. 순간 어떤 영감이 획 스쳤다. 유레카!

나는 ‘무슨 생각 잠겨 있나/ 비스듬히 바라보면’ 일필휘지로 써 내려갔다. 그래보야 교실 안에는 나 말고 몇 아이만 남았지만 나는 당당하게 교실을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 선생님께서 나를 교무실로 호출했다. 내가 쓴 시가 초등부에서 장원을 했다는 것이다. 정말 믿기지 않았다.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지만 내가 장원이 맞았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워낙 그림을 좋아하시는 담임선생님은 주최 측으로부터 내가 쓴 시를 입수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 시고는 시화 액자를 만들어 내게 선물을 주셨

다. 반세기 전의 일이라 지금은 그 액자가 언제 어디서 없어졌는지 종잡을 수가 없지만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음이 분명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교내 백일장이 열렸고, 시제는 ‘자유’였다.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거였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된 초등학교 무렵의 그 시를 거침없이 써 내려갔다. 5분이 채 안 걸렸고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에서 감독하시던 담임선생님이 한번 훑어보시더니 눈으로 ‘이거, 베껴 쓴 거지?’ 물었고, 나도 눈으로 ‘아닙니다. 제 작품입니다.’하고 이심전심 답을 하고는 당당하게 밖으로 나왔다. 며칠이 지난 월요일 전체 조회 시간에 나는 구령대 앞에서 교내문학백일장 상장을 받고 있었다. 받고 돌아서면서 나는 속으로 웃었다. ‘문학, 참 시시한 거라고’

무근성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일상에 치여 자주 가보진 못하지만 글이 되지 않을 땐 버스를 타고 원도심 무근성으로 간다. 내 문학의 처음이 거기일 것 같아 그곳으로 간다.

“

창을 통해 바깥을 보고
싶으면 바깥 풍경이 보이고
비스듬히 창을 보면 나를
포함한 교실 안 풍경이
보였다. 어떤 때는 교실
안과 밖의 풍경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했다. 순간 어떤
영감이 획 스쳤다. 유레카!

”

김수열 시인

제주에서 태어나, 1982년『실천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어디에 선들 어따랴』,『신호등 쓰러진 길 위에서』,『바람의 목례』,『생각을 훑치다』, 산문집『김수열의 책 읽기』,『첫따파람 부는 날이면』 등이 있다. 제4회 오장환문학상을 수상했다.



사진이 붙잡은
삶의 순간들

2019년 제주시 원도심
근·현대 사진수집 아카이빙 사업



- 01 풍선장수, 칠성로. 1969. 서재철
- 02 아이스끼끼 장사. 칠성통. 1968. 서재철
- 03 수학여행. 서부두. 1968. 서재철
- 04 지갯꾼. 동문로터리. 1968. 서재철

지금은 볼 수 없는 낯설고 신기한 사진 속 사람들의 모습.
 그 풍경들을 놓칠세라 카메라 셔터에 눌러 담은 사진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커다란 추억의 저장고를 만들어 그
 시절 사람들과 제주의 풍경을 간직하려 한다. 사진을 통해 그
 시절 제주를 새롭게 발견해보자.





03

- 01 산지천 빨래터. 1968. 서재철
- 02 영화단체관람. 칠성로.
중앙극장 북신로길. 1970. 서재철
- 03 줄넘기. 제주시 삼도동. 1969. 서재철
- 04 운동회. 옛 공설운동장. 1967. 서재철



04



내가 사는 대정, 내가 살아갈 대정

찾아가는 대정읍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10년, 20년 후에도 대정읍에서 살아갈 주역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찾아가는 대정읍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대정중학교 363명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세 달의 여정을 다시 한 번 만나보자.

10년 후 마을의 주인인 청소년의 도시재생

찾아가는 대정읍 청소년 도시재생학교(이하 청소년 도시재생학교)는 앞으로 이 도시에서 살아갈 청소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정읍 도시재생의 의미를 알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의 청소년 도시재생사업 참여 사례를 고박 뒤져 보았지만 대부분 소규모 일부 청소년들이 참여한 일회성 행사, 현장 답사형 행사였다. 마침 대정읍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강승유 위원님이 대정

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움을 주셨고, 이에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업구역 바로 곁에 있는 대정중학교(교장 조효섭)와 순조롭게 협의를 시작하였다. 19년 9월 센터와 대정중학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정읍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알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대정읍을 구상하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할지 머리를 맞대었다. 그렇게 시작된 ‘2019년 찾아가는 대정읍 청

소년 도시재생학교’는 대정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19년 9월 16일에 시작해 12월 24일까지 모두의 힘이 모여 운영되었다. 청소년 도시재생학교는 도시재생 사업지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살고 싶은 대정읍의 모습을 직접 구상해보는 활동을 통해 자주적 시민이자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제언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교육사업 중 대상지역의 중학교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는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한 반에 스물 일곱살이나 되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면 보조진행자는 필수였다! 교육 준비와 피드백의 시간까지 센터 내 전체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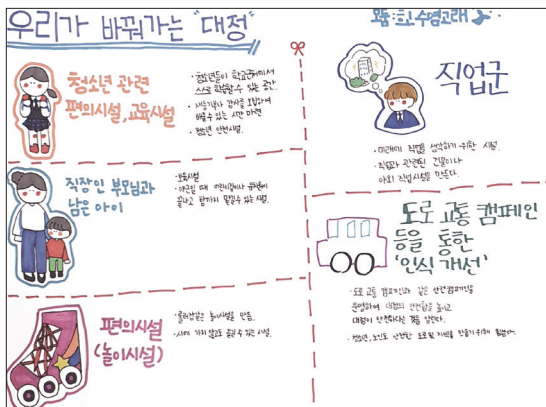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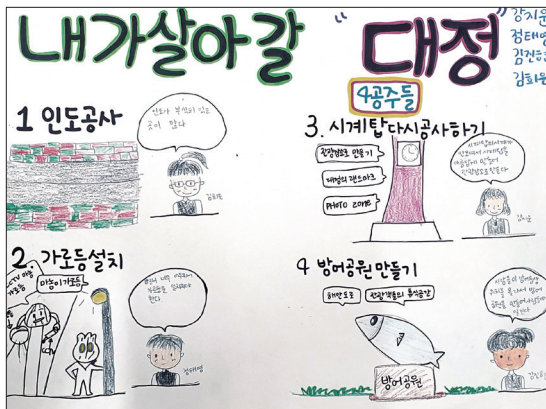
1학년, 내가 살고 싶은 대정은요

1학년 학생들은 기본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희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1학년 부장이자 과학교사인 오인실 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프로그램은 '나도 청소년 도시재생 활동가(신지우 웹툰작가)', '환경과 미래직업(김지환 업사이클링 작가)', '나도 도시설계사(오인실 교사/대정중)'가 진행되었다. 신지우 작가의 그림 퍼실리테이션은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었고, 대정에서 계속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바다쓰레기를 활용한 조명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은 새로운 것만이 아닌 낡고 오래된 자원들도 훌륭한 작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재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 아이들은 김지환 업사이클링 작가와 함께 유목, 폐 생선상자 등으로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조명작품을 만들면서 직접 전기와 도구를 다루고,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상에 밀려든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세계적인 환경 이슈에 대해 고민했던 학생들은 이제 바닷가에서 쉽게 발견하는 잘게 쪼개진 쓰레기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청소년 도시재생학교의 든든한 지원군 1학년 과학교사 오인실 부장 선생님. "학생들이 모슬포에서 활동하는 장인, 직업군들을 직접 만나보고 지역에 대한 희망을 얻게 하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위 2학년 학생들은 '내가 살아갈 대정'에 불법주차 없는 안전한 인도, 등·하교 길을 밝혀줄 가로등, 유해 간판 정비, 넉넉한 공부공간과 청소년 운동시설, 배차 간격이 짧은 마을버스 등을 제안했다.

아래 흰수염고래 팀이 제안한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도로 교통 캠페인은 이들에게서 이미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지역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엿보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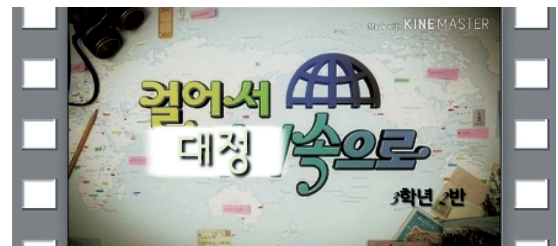
2학년, 내가 사는 대정, 내가 살아갈 대정은 말이죠

2학년은 대정중학교 2학년 임경아 부장 선생님과 담당과목 선생님들의 교과기획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대정오일장과 제주추사관 현장교육을 포함하여 '내가 사는 대정, 내가 살아갈 대정', '바탕, 대정, 그리고 우리', '바람이 차갑게 부는 유배지, 역사의 한 자락'이 운영되었다. 청소년 소설 '너 지금 어디가?' 에바 알머슨의 그림과 고희영 영화감독의 글로 유명한 동화 '엄마는 해녀입니다'로 시작된 2학년의 도시재생학교는 대정지역의 캐릭터도 그려보고 대정의 중심 시계탑의 새로운 모습도 구상해보는 등 청소년의 눈으로 보는 대정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은 이 도시가 활력을 찾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3학년, 두뼉두뼉 걸어서 모슬포 한 바퀴

고입 내신으로 바빴던 3학년은 입시의 중압에서 벗어난 12월에 청소년 도시재생학교를 진행했다. 대정고와 대정여고 외에도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고입을 결정하는 대정의 청소년들이 많았기에 어쩌면 이들에게는 지역을 잘 알게 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었다. 3학년 도시재생학교의 첫 과정은 스마트폰으로 영상편집을 배우는 '청소년 도시재생과 마을 홍보(문재웅 감독)'였다. 모슬포항 옆에 있는 대정오일장에서 친구들과 홍보 영상을 찍고 옛 대정면사무소, 오래된 기름집, 미용실, 100년 역사의 대정초등학교, 제1육군훈련소의 강병대교회 등 대정만의 역사문화자산을 기록했다.

대정읍의 특색을 생각해보는 '비주얼씹킹'으로 만나는 우리 마을(김현희 강사)과 알뜨르비행장과 첫알오름 학살터 위령탑 등을 돌아보는 '대정읍 역사문화자산 현장교육(최성환 교사/대정중)'을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진행했다. 12월 23일 진행된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수료식에서는 36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진행된 대정읍 홍보 영상 콘테스트에 영상을 공모한 3학년 학생들이 1등부터 아차상까지 수상하는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걸어서 대정속으로'란 주제로 3학년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마을 홍보영상



“

장래 대정에 살며 지역의 인재가 될
청소년들이 직접 대정읍과 도시재생에 대해
고민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강승유 (대정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 /
대정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장) —

”

“

도시재생학교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장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이 지역에서 활동할 미래의 인재가 될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알아가는 교육은
교육청의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풍성한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며 2020년도 도시재생사업에도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겁니다.

— 조효섭 (대정중학교 교장) —

”



대정중학교 학생들은 '우리 고장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버려진 해양쓰레기를 예쁜 조명으로 만들 수 있어서 신기했다', '우리 대정에 설치하고 싶은 건물을 지어 보고 이야기해보니 너무 좋았고 더욱 많이 하고 싶다', '강사님이 자기 직업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서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등의 당당하고 속 깊은 활동 소감을

전해 왔다. 이들 활동이 기록된 7분 내외의 영상은 지난 제19회 최남단방어축제 대정읍 도시재생 부스에서 행사기간 동안 상설상영회를 가지기도 했다. 방문한 분들이 감탄과 함께 "어머, 우리 딸이네", "이 사람이 우리 언니예요!", "앗, ㅇㅇ대!"라고 알아봐 주시는 등 대정읍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이라는 끈끈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었다.



도시를 살리는 대학

전문가들을 도시재생에 있어 대학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와 부속 병원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등록금, 의료비, 연구비 수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020년, 도시재생과 대학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해외 사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자.

참고 자료 | 모종린(2017) 골목길 자본론, 다산북스, 최은주(2018) 도시재생에 대학의 역할



미국 시라큐스 대학 전경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통한 산업 혁신

미국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시라큐스 다운타운은 중산층이 떠나면서 유명도시로 변했다. 그런데 2005년, 다운타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대중교통 노선이 확대되고 새로운 상가들이 들어섰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거리의 색깔이었다. 시내 거리가 시라큐스 대학을 상징하는 오렌지색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2005년 시라큐스 대학은 도시재생의 첫 사업으로 디자인대학을 이전했다. 다운타운 서쪽 끝에 있

는 창고를 매입해 재건축한 것이다. 낙후된 도심 건물의 재생과 거리 정비가 연결통로 프로젝트의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디자인대학을 현장 가까이 이전한 것이다. 시라큐스 대학과 시정부는 2005년부터 4700만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건물과 거리를 리모델링했다. 10년 동안 총 55개에 달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대학은 시설 이전과 거리 재생과 더불어 캠퍼스와 도심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 확충에도 나섰다. 결과는 놀라웠다. 다운타운의 유동인구가 증가했으며, 공원, 갤러리, 음식점 등 도시 어메니티가 늘어나며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청년층 가치와 소비문화의 변화로 지역 공동체와 도시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라큐스 대학의 변화와 발전은 도시재생에 있어 대학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

영국 코벤트리 대학은 다른 대학에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사회적기업센터다. 2014년 설립된 코벤트리 대학의 사회적기업센터는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티를 통해 기업가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문제를 민간영역에 연결하는 사회혁신 노드Node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가들을 학문연구와 연결해주는 소셜 임팩트 엔진, 비즈니스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발굴하는 소셜 임팩트 챌린지 등은 대학의 지식과 자원을 지역사회에 연결하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이다. 또한 비즈니스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기업가 훈련 프로그램, 젊은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인큐베이팅과 학생 스타트업을 위한 융자와 보조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코벤트리 대학 사회적기업센터는 직원과 학생, 지역사회 주민들과 1만 번 이상의 강의, 이벤트, 워크숍을 통해 만남을 가졌다. 설립한 지 3년 만에 35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이 코벤트리 대학을 통해 창업을 했다. 사회적기업센터의 목표는 더 많은 학생들을 사회적기업 영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19세 때 지역협동조합을 설립해 20여 년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한 제프리 센터장은 이를 위해 기업가 개개인에 집중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문 연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경제와 발전을 함께 하고 있는 코벤트리 대학의 성과가 인정



영국 코벤트리 대학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센터 내부 모습

받으며, 2016년 코벤트리 시가 영국 내 사회적기업진흥협회인 'SEUK(Social Enterprise UK)'로부터 사회적기업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대학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학이 도시와 지역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식, 인재, 문화 등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원이 모두 대학에 집적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대학과 상생 협력해 산업 혁신을 이끄는 도시야말로 한국의 지역 중심 성장 시대를 여는 도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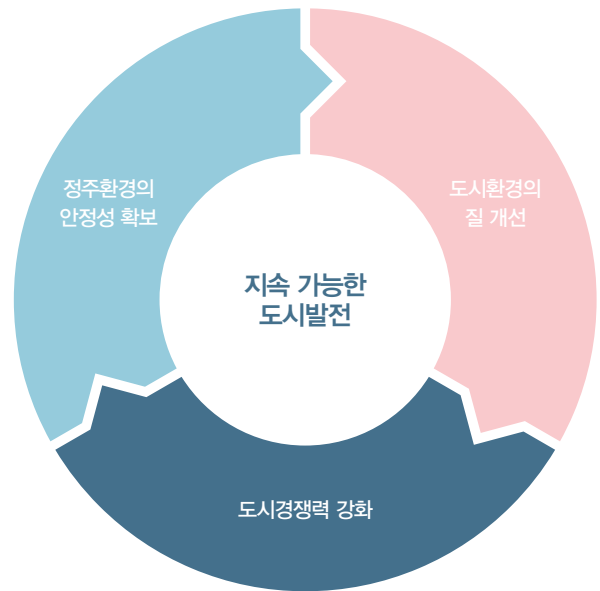


도시재생 용어사전

도시재생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립니다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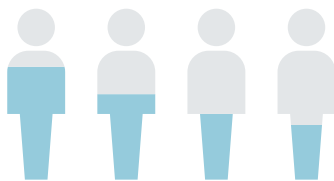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 쇠퇴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3대 쇠퇴지수인 인구, 산업, 노후도 중
2가지 이상이 기준에 부합하면 기준에 충족



인구사회부문

- 과거대비 인구변화(%)
- 최근 30년간 20% 이상 감소지역
최근인구변화(년수)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감소



산업경제부문

-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 최근 10년간 5% 이상 감소지역
최근사업체변화(년수)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수 감소



물리환경부문

- 노후건축물비율(%)
- 전체 건물 중 준공 20년 이상 지난
건물의 비율이 50%인 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함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절차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존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물리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임

사업 모델은 면적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가지로 나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계획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중심의 자생적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6년 '2016년도 도시재생공모사업 근린재생형사업 부문'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임(사업규모 200억 / 사업기간 5년)

2017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역사경관재생
- 문화예술재생
- 어메니티재생
- 주민정주재생
- 교통주차혁신재생
- 지역경제재생
- 재생기반마련

7개 단위사업
181억 9200만원 규모



2020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노후주택 집수리로 정주여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건축물 외부경관 정비를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집수리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했다.

모집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았다. 사업대상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구역(삼도2동, 일도1동 내 지정지역) 내 주거지역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으로 대상구역내 20년 이상 노후 주택 총 30가구를 선정하며, 지붕, 창호, 대문, 담장, 옥상, 벽면 정비 등 외부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개인 자부담이 10%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현물지원이 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제주시 원도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들이 61.1% 이상이나 분포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노후 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주민구의 유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자들에게 상담 및 컨설팅으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지원범위의 적정성,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에별 선정 후, 5월 6일 선정자에게 개별통보 예정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센터 운영시설 임시휴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공이용시설 임시휴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월 25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유지됨에 따라 질병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제주책방 및 상생마당 1층 전시공간 등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주민교육 및 간담회, 워크숍 등의 행사를 추후 안내시까지 연기하였다.

센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



침에 따라 센터 직원 및 이용자, 방문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후 상황이 진정된 이후 진행될 프로그램들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